

여수시 '지역 문화유산 복원 사업' 순항

전라좌수영 동헌·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 등 둘레길·야간 경관도...시민·관광객 역사 배움터 공간 활용

여수시가 지역 주요 문화유산 복원 사업을 통해 호국 역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 전남관 보수 정비,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 선소테마 정원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은 성종 10년(1479)에 설치돼 고종 32년(1895)까지 417년간 운영된 수군의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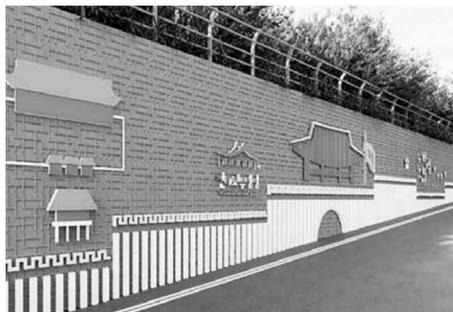
던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 군사를 지휘하며 난중일기를 썼던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동헌 복원사업은 과거 동헌 내 운주헌 등 8동의 건물을 복원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며 오는 202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17년부터 부지 매입과 시·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민선 8기 들어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돼 복원 예정지의 토지와 건물 매입이 완료됐다.

내년에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와 시설설계용역을 거쳐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여수시가 지역 문화유산 복원으로 호국 역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 조감도와 전남관 미디어파사드, 전라좌수영 경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여수시가 지역 문화유산 복원으로 호국 역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 조감도와 전남관 미디어파사드, 전라좌수영 경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이다.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는 동산동에서 관문동-고소동-중앙동-군자동으로 이어지는 약 1.74km 구간이다. 여수시는 이 일

대에 호국 역사를 담은 거리 디자인을 조성할 계획이며, 연내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내년 2월 재개관 예정인 전남관과 연계해 미디어파사드 사업 공모 및 상설 프로그램 기획으로 전통 문화예술 공연을 브랜드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삼도수군통제영성의 동·서·남문지와 성곽 일부를 복원하고, '수문장 교대식'

등 역사적 체험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시전동 선소유적 일대에서는 국·도비 포함 239억원을 투입해 선소테마정원을 조성한다. 선소테마영상전시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실감영상관과 지식체험관을 갖춘 최첨단 영상전시관으로 건립된다.

또한 선소 주변 연안에는 옹천 장도 입구까지 이어지는 둘레길과 야간 경관을 조성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도심 속 정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일대는 시민과 관광객의 역사 배움터이자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 호국정신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여수를 역사·문화도시로 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성 기자



지난 20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김영록(오른쪽 네번째)전남지사와 공영민(오른쪽 세번째)고흥군수가 현대호텔과 함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3자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우주산업 허브 조성 '탄력'

도·현대로템·郡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상생협력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우주산업 허브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전남도·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현대호텔과 함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3자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이용배 현대호텔 사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지정된 고흥군을 우주발사체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대호텔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에 적극 협력하고 전남도와 고흥군은 행정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에 조성될 인프라에 현대호텔의 우주산업 전문성을 결합해 발사체 연구·제조·상업화를 아우르는 첨단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인프라와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호텔은 국내 최초 연소시험을 통해 재사용발사체 적용을 위한 메탄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액체메탄(LNG) 발사체 상업화를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국가산단 조성 및 우주산업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국내 최초 메탄엔진 개발과 누리호 개발사업 참여 등 다양

한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한 현대호텔이 앞으로 발사체 시장 선도를 선도하길 바란다"며 "현대호텔이 글로벌 우주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배 현대호텔 사장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전남도, 고흥군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국가 우주발사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호텔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데이터 활용 등 우주산업 전주기 조성에 협력해 고흥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성공은 물론 세계 5대 우주강국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고흥=최봉환 기자

순천시 "내년 출생·양육 예산 증액"

올해비 24% ↑ ...산후조리비 전월 100만원 지급 등

순천시가 어려워진 민생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도 출생, 양육,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을 어렵게 한 주요 원인으로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내년 가정에서 대안 경제책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출생·양육·돌봄 예산을 2024년 대비 24%(37억원)를 증액했다.

내년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금액 상향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방학중 급식비 지원 ▲외국인 아동에 대해 연령별 보육료 50

%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후조리비용은 종전 첫째아 80만원, 둘째아 100만원 지원을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의 산모에게 100만원씩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평생 동안 여성 1인당 25회 지원하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연령기준을 폐지해 모든 여성이 동일하게 해당 3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함께돌봄센터(3개소)와 순천형 초등돌봄기관(3개소)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동안 급식비 1319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내에서는 최초로 순천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어린이집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순천시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순천형 응급의료 체계 확립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에도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속 운영하며, 24시간 소아응급실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대학병원 설립과 연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임신부터 출생, 양육, 초등돌봄까지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양육, 돌봄 지원 확대로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가 촉진되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정기 기자

보성군, 종합청렴도 1등급 '3년 연속' 위상

영·호남 기초단체 중 유일...청렴노력도 만점 받아

보성군이 3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고 있다. <사진>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80.2), 청렴노력도(91.4)로 종합청렴도 1등급의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켜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로 영·호남 기초자치단체인 7개 시군 중에서 보성군이 유일하다. 보성군 종합청렴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226) 평균인 77.1점보다 5.6점 높은 82.7점이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 추진 의지로 시행한 청렴추진단 구성, 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청렴 정책 등을 통해 5개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았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 민원

인 등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 부문에서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감점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뿐더러 지난해보다 1점 상승한 90.2점의 평가를 받았다.

외부 체감도는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 두 가지 분야가 평가되며, 부패인식 분야는 부정 청탁, 특혜 제공, 업무 투명, 절차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소극 행정 등 7개 항목, 부패 경험은 금품 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등 2개 항목



보성군 3년 연속 1등급 달성 축하 행사 모습. <보성=임병연 기자>

담양군,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전년비 1등급 상승...도 22개 시군 상위권 차지

담양군은 22일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7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공공기관, 업무 경험에 있는 민원인, 기관 내부 공직자 등이 참여

하는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사건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올해 담양군의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모두 지난해 대비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으며, 전남도 22개 시군에서도 상

위권을 차지했다.

담양군은 이 군수를 중심으로 한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앞장서 청렴 활동을 추진했으며, 모든 부서가 자율적으로 청렴 과제를 마련해 실천하고 청렴정당회 개최 및 청렴 교육 추진 등 공식사회 내에서 자연스레 청렴정신이 깃들도록 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판 삼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군의회, 제365회 정례회 폐회

올해 행감 총 187건 시정·개선...내년 예산안 원안 의결

장성군의회가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22일 장성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차 추경안, 조례안 등 급격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성군정 전반에 대해 사전의 충분한 자료 준비와 군민제안, 11개소 현장방

문 등을 바탕으로 1년 간의 실행 상태를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별채 허가 사후 관리 감독 철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 인력 관리 대책 모색 ▲가축 사육시설 악취 민원 예방 대책 마련 등 총 187건(시정 4·주의 4·개선 20·권고 157·건의 2)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김한중 장성군수가 제출한 5천708억원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천288억원 대비 440억원(8.4%)이 증액됐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천631억원, 특별회계는 79억원이 확정됐다.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 안 또한 원안결됐다.

이 밖에 나철원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청소년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미화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스포츠경기·테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장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등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처리하고 2024년 장성군의회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장성=김문태 기자